

식탐 대마왕 선생과 인기짱 학생의 도시락 전쟁

스탠리의 도시락

유머든, 노래든, 춤이든,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학급의 인기 스타 스탠리(파토르 A 굽테)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점심을 걸러야 하지만 도시락을 나눠 주는 마음 착한 친구들 덕분에 부족함 없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낸다. 평온한 나날도 잠시, '식탐 대마왕'으로 소문난 베르마(아몰 굽테) 선생이 친구들의 도시락을 습격하기 시작하면서 위기가 찾아온다. 급기야 스탠리 탓에 자신의 도시락 지분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아챈 베르마가 '도시락 없이는 등교 금지'라고 선전포고까지 하는데... 과연 스탠리는 도시락을 사수할 수 있을 것인가?



개봉 : 2012. 3. 8

감독 : 아몰 굽테

출연 : 파토르 A 굽테

상영시간 : 90분

관람등급 : 전체 관람가

홈페이지 : <http://dosirak-movie.kr>



감독인 아몰 굽테는 극중 베르마 선생으로 출연해 식탐 대마왕의 모습을 완벽하게 표현했다. 사진제공_ 언니네 홍보사

9.11 테러로 불행해진 천재 자폐증 남성이 미국 대통령을 찾아가는 내용의 인도 영화 '내 이름은 칸'은 지난해 이른바 '발리우드(인도 영화)' 열풍을 일으켰다. 2012년 또 한 편의 발리우드 코믹 감동 드라마가 국내 관객들을 찾는다. 지난해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영화의 창' 부문에 초청된 '스탠리의 도시락'은 관객들의 찬사를 끌어내며 정식 개봉 전부터 입소문 흥행에 돌입했다.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11살 스탠리와 친구들의 훈훈한 우정을 담아낸 이 영화는 겉으로는 코믹을 표방하지만 내면에는 노동 현장에 내몰린 인도 아이들의 서글픈 모습이 녹아 있다. 지구촌의 어린이 노동인구는 약 2억5천만 명. 인도에서만 어린이 1천200만여 명이 채석장, 카카오농장 등에서 1달러도 안 되는 일당을 받고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감독인 아몰 굽테는 베르마 선생으로 출연해 식탐 대마왕의 모습을 완벽하게 표현해 냈다. 어린 학생들의 도시락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눈빛과 게걸스럽게 먹어대는 모습은 등짝을 발로 차주고 싶은 충동이 절로 일어날 정도다. 물론 아이들의 해맑은 동심을 그려낸 연출력도 물이 올랐다는 평가다.

감독, 배우, 시나리오 작가로 맹활약 중인 아몰 굽테는 난독증을 소재로 성적 지상주의의 교육제도를 비판한 데뷔작 '지상의 별들처럼'으로 이미 연출력을 인정받았다. 두 번째 연출작인 이번 영화에서도 인도 아동노동의 어두운 현실을 밝고 따스한 시선으로 묘사해 영화를 볼 때에는 부담 없이 관람하지만 보고 난 후에는 깊은 성찰에 빠져들게 하는 수작을 완성했다. 성은 같지만 주연을 맡은 파토르 A 굽테와는 아무 사이도 아니다.


누구나 마법 같은 이야기를 꿈꾼다

로맨스 조



3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스타 감독으로 자리매김한 이 감독은 '이야기'가 궁하다. 별다른 이야깃거리가 없어 차기 작업을 미루다 프로듀서의 계약으로 허름한 시골 여관에 갇혀 시나리오를 집필하게 된 이 감독은 심심풀이로 부른 다방 레지에게서 우연히 '로맨스 조'의 기묘한 사랑 이야기를 듣는다. 인기 여배우 우주현이 자살하던 날, 그녀가 작업한 마지막 영화의 조감독이었던 로맨스 조는 영화판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시골로 내려간 로맨스 조는 자신이 영화를 통해 더 이상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음에 절망하다 자살을 시도한다. 하지만 그 순간 우연히 다방 레지와 마주치게 되고 이를 통해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첫사랑 초회를 떠올리는데...

누구나 현실과 다른 '특별한 삶'을 동경한다. 그래서 환상이 가득한 마법 같은 이야기를 통해 고단한 현실을 이겨낼 위안과 희망을 얻고 싶어 한다. 몸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믿는 국문과 출신의 다방 레지는 티켓을 팔 수 있을 만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필요하고 300만 관객을 동원한 스타 감독은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이야기가 절실하다. '입봉(감독 데뷔)'을 꿈꾸는 조감독은 조감독대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찾아 필사적으로 떠돌고 어떤 이들은 지루한 일상을 떨쳐 내려고 이야기의 도움을 구한다. 이들이 원하는 게 바로 '로맨스 조'의 이야기다.

'로맨스 조'는 이야기와 이야기가 서로 교차하며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 나간다. 진실과 허구를 구분하기 어려운 독특한 이야기 구조는 다음 장면을 예측하기 힘들어 흥미진진하고 결말에 이르면 다른 영화에서 찾아보기 힘든 색다른 만족감까지 준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돼 '신종 로맨스 영화'라는 찬사를 들으며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시민평론가상인 '엘로우 파인트리상'을 수상했다. 역시 지난해에 열린 서울독립영화제에서도 호평을 받으며 '개봉하면 다시 보고 싶은 영화'에 선정됐다. 더욱이 로테르담국제영화제의 유일한 경쟁 부문인 타이거상 후보로 초청되면서 이광국 감독은 단숨에 한국 영화계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기대주로 떠올랐다.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로 타이거상을 받은 홍상수 감독 밑에서 조감독으로 5년간 내공을 쌓은 이 감독은 '씨네21 신인 감독 발굴 프로젝트'에 시나리오가 당선되며 홍 감독과 함께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연출한 임순례 감독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꿈에 그리던 입봉에 성공했다. 

정승희 기자 qqutti@hanmail.net



개봉 : 2012. 3. 8

감독 : 이광국

출연 : 김영필, 신동미, 이채은, 이다윗

상영시간 : 115분

관람등급 : 15세 관람가

홈페이지 : <http://blog.naver.com/cine21i>



'로맨스 조'의 진실과 허구를 구분하기 어려운 독특한 이야기 구조는 다음 장면을 예측하기 힘들어 흥미진진하다. 사진제공_ 씨네21아이